

5급 보다 낮은 4급... 영암군의 이상한 인사

5급직제 문화관광과장 서기관 임명 '서열 무시'

4급직제 기획감사실장은 5급 유임... 반발 잇따라

영암군이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또다시 자치법규와 직제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영암군은 전통평 군수의 공약사항인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시스템 도입과 작지만 관리능력이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32기구 147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군정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위상을 정립해 기대를 모았다.

또 군정 안팎에서도 군정업무의 핵심인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과거처럼 사임에 따라 임명되는 인사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정기 인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군은 정기인사에서 5급인 기획감사실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뒷말을 낳아 공직자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욱이 4급 직제였던 문화관광공실이 5급 직제인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돼 승진인

사 없이 보직이동이 가능한데도 4급인 문화관광실장을 5급 직제인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다시 임명해 서열과 자치법규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르면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 상위직급인 4급 서기관이 하위직급인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되는 인사를 단행해 공직자와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연공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인정하지만 4급인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정년퇴임이 6월에 예정됐고, 현 기획감사실장의 임기가 6개월에 불과해 업무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특정인을 위한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민선 6기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위상을 4급 직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고, 군정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군은 또다시 자치법규와 직제를 무시하고 4급이 아닌 5급을 기획감사실장에 유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공직자와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연공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인정하지만 4급인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정년퇴임이 6월에 예정됐고, 현 기획감사실장의 임기가 6개월에 불과해 업무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특정인을 위한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해남군 황산면 김 양식어민이 지주식 김을 채취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황산 김' 전국 최초 유기수산물 인증

화학약품 대신 천일염수 사용 밀도 높고 고소한 맛 인기

해남군 황산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모부늬돌김)'이 전국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황산 산흥어촌계가 전국 1호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2010년 도와 2012년, 2013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이어 성과이다.

황산면 유기수산물 인증지역 김 양식어가는 모두 70 여가(940.5ha)이다. 이들은 황성 처리제와 성장촉진제 대신 천일염수로 이물질이 없는 김을 생산하고 있다.

황산 '유기수산물 김'은 인증 이후 지난 19일까지 296t을 생산해 3억7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가격은 일반 물김에 비해 2만2000원 높은 14만6000원선

(1포대 120kg 물김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전 '친환경 김' 인증은 김양식장의 수질검사를 위주였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유기수산물 인증제도가 변경되면서 생산어민의 건강검진과 선박, 채취기의 위생관리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지주식 김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햇빛 노출시간을 늘림으로써 성장속도는 더디지만 밀도있게 자라면서 흑갈색을 띠고 김 고유의 고소한 맛을 간직하고 있다.

군은 유기수산물 인증을 위해 인증 수료를 지원하고 함께 친환경 김양식 천일염수 25t 지원,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보전으로 1만 책에 대해 1책당 5만 원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모두 845 여가(7835ha)에서 물김 7만9108t을 생산해 56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정읍교도소 5월 개소... 전북 3번째 등계리에 500명 수용 규모

정읍교도소가 올 상반기에 문을 연다. 정읍교도소는 "최근 교도소장과 직원들이 배치돼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소성면 등계리 일원 부지 15만㎡에 15개의 사무동과 수용동을 갖췄으며 전체 건물면적은 2만㎡이다.

정읍교도소는 500여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교정시설로, 2009년 공사에 들어가 5년5개월여 만인 지난해 말 완공됐다. 완공에 맞춰 지난 19일 김명식(50) 초대 소장이 부임했고 직원 50여명도 배치됐다. 개청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5월 안에 문을 열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55개 교정시설이 지역별로 널리 분산돼 있으나 전북에는 기존의 전주(1908년), 군산(1910년) 외에는 100년이 넘도록 교정기관이 신설되지 않아 지역민의 불편이 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올 상반기에 문을 여는 정읍교도소 전경. 전주와 군산에 이은 전북지역 3번째 교도소이다. <정읍교도소 제공>

새 얼굴

"재범방지 교화시스템으로 안전사회 조성"

김 영 식 정읍교도소장

"올 상반기에 조속히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취임한 정읍교도소 김영식(50) 초대 소장은 "교도소가 개청하면 면회 등을 위해 전주교도소까지 오가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범방지 교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읍시 발전과 더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 출신인 김 소장은 전북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초급 교정간부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교정기관, 독일 국제범죄학연구소 등지에서 근무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될 것"

황 종 택 정읍경찰서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화합하는 정읍경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부임한 정읍경찰서 황종택(58) 서장은 "경찰의 힘과 권위 또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없이 있을 수 없다"며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스마트(SMART)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황 서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8년 경찰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투신해 전주 완산경찰서장, 분청 외사과 외사기획, 전남 아공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1등서기관, 전북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중국 발해만서 밀려와

신안 김 양식장 직격탄

중국에서 서식하는 해초류인 '모자반'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전남해역으로 밀려와 전남도가 긴급 수거에 나섰다. 갈수록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김 양식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1일 "중국 발해만에서 주로 서식하는 모자반이 이달 초부터 북서풍을 타고 전남해역으로 밀려와 지난 18일부터 165척의 선박과 391명의 인력을 동원해 512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안 해역 3339ha에 1959t, 무안 해역 50ha에 50t 등 모두 2009t의 모자반이 유입돼 김, 다시마, 가두리 양

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모자반은 식용할 수 없는 '괭생이 모자반'으로 벌써부터 신안지역에서 생산된 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까지 선박 500척과 인력 280명, 중장비 30대를 투입해 나머지 1497t도 수거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어민들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서 모자반이 다량 유입돼 양식장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양식어가는 보상할 규정이 없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원엔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기 대로면 대지 317㎡(97)건평 1235㎡(363) 부지양호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편선 최적합지 1984㎡(600) 감정 7억7400 원엔 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합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물 1375㎡(416) 객실 33 온천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금제 광천동터미널 인근 6층건물 대지 661㎡(200) 건물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 15억 전세 9억 월500 회사사옥 등 적합한 25억

투자 매도 교환

- 조선평대 앞 대로면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인접, 월봉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함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 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관공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인
- 화정역 5분거리 대지 645㎡(196) 별장용 단독주택 등 적합 3억천
- 누문동 상업용지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일주택, 별장 부지 담양군 봉선면 와우리 1645㎡(498) 분할 매도도 가능 평당 54만원
- 장성군 추암면 30년 관백나무 2만여구 78965㎡(23887) 투자나 개발에 적합 매도 9억
- 일품 건물 쌍촌동 5.18공원 건너 원룸촌 대지 206㎡(60) 건물 453㎡(137) 인접, 가계, 원룸 15개 4억9천

이전해 갈 물건

- 관공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1009㎡(305) 건축물대장 있음 대출9천
- 무안군 망운면 자연녹지 전 2238㎡(667) 대지 555㎡(168) 대출8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지 및 전 2,148㎡ 건물 99㎡ 도로 및 환경양호 보림사 인근 매 2억3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면 및 4차선 국도접,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답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면,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광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면,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면,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림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면,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면,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몽칫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전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

법원경매

서구 풍암동 사거리코너 2층 스크린골프연습장건물 414㎡
감정가 8억7천
최저가 4억9천

동구 동명동 대지1,394㎡
주거환경정비구역 건물440㎡
상업지역 25M도로접
최저가 12억5천

부동산 제테크 전문

동구 충장로 3가 메인대로변 지하철역 입구 최저가 37억
대지 311㎡ 건물 543㎡
핵심상권
프랜차이즈 투자 적합

북구 생원동 대지 1,853㎡
감정가 3억1천 최저가 2억2천
도로접 전원주택 적합

부동산개발 및 경매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1-640-1618

단비플라워

축화화환3만
근조화환3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